제10강 법(dharma)의 두 가지 의미

(1교시)J_stJo01_031006_01

◎ 도가사상의 무위(無爲)와 열반의 유사점과 차이점

무위와 열반은 확연히 다르다. 다만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 초월적인 질서를 추구하며 인위적인 것보단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점에서 비슷한 느낌을 가질 뿐이다.

중국에서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열반을 초월적 경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도가의 무위와 표면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묶어버렸다.

도가와 불교의 차이점: 선정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불로장생이 목적이었던 도가의 선정과는 달리 불교의 선정은 영적인 성장이 그 목적임에 큰 차이가 드러난다.

◎ 옴마니반메훔(진언)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어왔던 것인가

리그베다 시대부터 신성한 힘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a-u-m a; beginning of universe u; maintain m; end of universe.

우주의 창조-유지-종말을 뜻한다.

이것은 초기불교 때부터 있어왔던 것이라기보다 밀교처럼 인도의 전통사상이 불교에 수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성불하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

一切衆生 皆有佛性 =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불교에선 情識(감정과 사고의 능력)을 가지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규정한다. (중생, 유정)

정식이 있는 생명(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 기독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

예수가 잃어버린 8년 동안 인도에서 수학했다는 이야기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며, 기독교는 주다이즘의 연속-불연속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지, 인도적 사유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보기엔 힘들다.

기독교와 불교가 보편종교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신성함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의 성인들은 다른 이들이 만나러 왔지만, 예수와 붓다는 매우 활동적이었다. 성물, 경전,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믿음과 성스러움만 있다면 그 신성함이 존속할 수 있으며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교리는, 이 두 종교가 세계적인 보편종교로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이러한 면에서 두 종교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는 있다.

(2교시)J_stJo01_031006_02

◎ 법(dharma)

윤리적 의무 혹은 계급적 의무. 또 사회적 윤리라는 의미를 지니고도 있으며, 이에 따라 그것을 규정한 법률까지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 전통 내에서 법은 수많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붓다의 가르침

불교의 삼보(불-법-승) 중의 하나로서의 법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즉 다른 종교와 사상과 구별되는 불교적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존재의 궁극적 요소 (불교적 전문용어)

독립된 각각의 개별적 요소만이 존재할 뿐 인간/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 요소인 색-수-상-행-식 또는 75개의 법뿐이다. 즉 인간 경험의 모든 요소들 간의 생-멸, 생-멸의 연속적/비연속적 과정들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의미다. 존재의 요소라는 측면에서의 법이 가지는 의미는 '나'나 '나의 것'이라는 방식으로 경험을 설명하지 않고, 즉 무아(無我)를 증명하면서, 다르마들만으로 경험을 설명하는 체계를 세웠다는 것에 있겠다. 이렇게 모든 것이 법이라는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며, 법의 끊임없는 화합/해체의 생-멸의 과정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 불교에서의 법은 철학적 술어인 **人空法有**, 법 실재론적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절대적이고 고유한 자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 의미는 또다시 변화한다. 대승불교에서는 人空法空, 즉 '법도 공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인공법공의 뜻은, 오선지에서 각 음들이 서로의 관계에 의해 그 자체가 규정되듯이, **법 또한 연기적 관계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법의 의미는 절대적인 고유의 자성(自性)을 지니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성 내에서 가변적인 자성(自性)을 지니는 개념**으

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1)

제10강 법(dharma)의 두 가지 의미

문과대학 철학과

02학번 H 학생

Question1. L학형의 프로토콜에서

도가사상의 무위(無爲)와 열반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 초월적인 질서를 추구하며 인위적인 것보단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점에서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개념의 유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 교육이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끼는 오해인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무위와 열반은 다르다.** 중국에서 처음 불교가 들어왔을 때 열반을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했던 개념이 바로 도가의 무위였다. 초월적 경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무위와 열반의 표면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묶어버렸다. 즉 격의(格意) matching-concept 불교에서 바로 열반을 무위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열반을 무위로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후에 잘못됨을 깨닫고 산스크리트어(Nirvana)의 음사로 번역하여 열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가와 불교의 차이점은 선정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불로장생이 목적이었던 도가의 선정과는 달리 불교의 선정은 영적인 성장이 그 목적임에 큰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선정의 차이점은 중국의 고유한 사유형태인 도가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Question2. L 학형의 프로토콜에서

옴마니반메훔(진언)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어왔던 것입니까?

리그베다 시대부터 신성한 힘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a-u-m a; beginning of universe u; maintain m; end of universe.

우주의 시초-유지-종말을 뜻한다.

이것은 초기불교 때부터 있어왔던 것이라기보다 밀교처럼 인식도의 전통사상이 불교에 수용된 결과로 볼수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성불하십시오" 라는 말은 일반 신자가 모두 부처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인도의 사유에서의 불성은 붓다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리킨다.

一切衆生 皆有佛性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것을 긍정한다.

cf)불교에선 情識(감정과 사고의 능력)을 가지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규정한다.

생명을 중생이라 하기도 하고 유정인이라 하기도 한다.

정식에 대한 바로미터 중 하나가 고통이라 할 수 있다.

(ex)4주된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장면을 보고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진다.

정식이 있는 생명(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하지만 불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다. 동아시아의 사유에서는 불성을 완전한 붓다 그 자체를 가리킨다. 잠재성이 아니라 actuallity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동아시아 사유(중국화된 사유)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성불하십시오" 라고 할때의 불성은 이러한 동아시아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너는 이미 부처이다." 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발보리심,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의 밑바탕에는 붓다가 설파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도그마적인 것이 아닙니까.

불교에서의 믿음은 회의 끝에 구해진 것에 대한 확신이다. 회의에 대해서 제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 모든 것에 대한 회의 끝에 자신이 확신한 것이 무너진다면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독특한 메타포는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낸다. 불교에서는 초월적 실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의 faith와는 다른, 명확히 말하자면 conviction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가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예수가 잃어버린 8년동안 인도에서 생활했고, 수학했다는 이야기의 근거는 엉터리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근거는 16-17세기 이후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인도의 브라만들이 듣고 마치 예수가 인도에 와서 가르침을 편 것처럼 서사

시의 형태로 기록을 남겨버린 것이다.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며, 기독교는 주다이즘의 연속-불연속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지, 인도적 사유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보기엔 힘들다.
기독교와 불교가 보편종교로써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신성함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의 성인들은 다른 이들이 만나러 왔지만, 예수다 붓다는 당시의 생활반경을 고려할 때 매우 활동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성물, 경전, 심지어 자신의 마음에 성스러움이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신성함이 존속할 수 있으며,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종교는 보편종교로써 발전할 수 있었던 점이었으며 이러한 면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는 있다.

법 dharma

법dharma는 흔히 인도전통에서는 윤리적 의무 혹은 계급적 의무라고 쓰였고 쓰여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윤리라는 의미를 지니고도 있으며, 이에 따라 그것을 규정한 법률까지 의미하게 되었다. 불교전통 내에서 법은 수많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1) 붓다의 가르침
불교의 삼보(불-법-승) 중의 하나로서의 법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즉 다른 종교와 사상과 구별되는 불교적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이므로 조금 더 확장해서 진리라는 의미의 용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리라는 것이 법의 전면적 용법은 아니다.)

2) 존재의 궁극적 요소(불교적 전문용어)
인간/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된 개별체라는 자아의식을 소멸시키는 것, 즉 무아(無我)임을 깨닫는 것이 불교의 교리라 할 수 있다. 존재의 요소라는 측면에서의 법dharma이 가지는 의미는 '나' 나 '나의 것' 이라는 방식으로 경험을 설명하지 않고, 즉 무아(無我)를 증명하면서, 다르마들만으로 경험을 설명하는 체계를 세웠다는 것에 있겠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 요소인 색-수-상-행-식 또는 79개, 많으면 174개에 달하는 것들 뿐이다. (교학적 불교체계가 갖춰지고 난 후 제시된) 인간 경험의 모든 요소들 간의 생-멸, 생-멸의 연속적/비연속적 과정들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모든 것이 법이라는 요소로 존재하는 것이며, 법의 끊임없는 화합/해체의 생-멸의 과정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 불교에서의 법은 철학적 술어인 人空法有, 법실재론적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무아이되, 법은 절대적이고 고유한 자성을 지니는 것으로

실재한다.

하지만 법dharma의 의미는 또다시 변화한다. 대승불교에서는 人空法空, 즉 법도 공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인공법공의 뜻은 오선지에서 각 음들은 서로의 관계에 의해 그 자체가 규정되듯이, 법 또한 연기적 관계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에 들어와서 법의 의미는 절대적인 고유의 자성(自性)을 지니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성 내에서 가변적인 자성(自性)을 지니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격의적으로 기표와 기의의 자의성을 이야기하는 언어학의 설명과 일부 유사하다고 이해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후기구조주의-해체주의의 사유형태와도 닮은 꼴이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Question.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두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사회에 있어서 규칙, 질서에 대해서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가요.

깨달음의 세계는 분명 분별지음을 뛰어넘은 곳이다. 하지만 "나는 부처이다." 라고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지향한다고 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관계성에서의 법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어적, 이성적 노력이 무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분명 아니다. 언어와 이성이 분별지음의 세계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초이성/깨달음의 세계가 불교도들의 절대적 지향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한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불교적 사유는 '쓸모없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사실 불교적 사유 내에서 사회철학적인 측면을 찾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불교가 개인의 깨달음만을 중시하는, 사회사상적 측면은 찾아보기 힘든 사유라는 것은 분명 오해이겠지요. 하지만 현대의 대중들이 가지는 불교에 대한 위와 같은 오해를 벗어나면서 스스로의 현재적 가치를 고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 환경문제,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등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올바른 입장을 표명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혹은 이후의 불교적 사유에서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모순(예를 들면 경제적 불평등이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비롯되는 인간 소외)에 대해 도움이 되거나 고려할 만한 언급이나 특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10강 법(dharma)의 두 가지 의미

철학과 02학번 J학생

-불교와 도가의 유사점, 차이점.

무위와 열반은 다르다. 기존의 제도교육의 영향으로 그 둘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가 도입되었을 때 '열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 도교의 무위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시정하여 Nirvana를 음사로 번역, 열반이라고 하기 시작했다. 불교와 도가는 명상법부터 다르며, 초기불교의 경우 정신에 관한 해탈을 중요시한 반면, 도교는 불로장생을 말했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는 도가사상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불교가 도교의 영역을 정신적인 차원으로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성불하십시오'라는 말은 모든 신자가 모두 부처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모든 정식(감정과 사고 능력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은 불성이 있다. 여기서 불성이란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에 들어오면서 그 의미가 변하여 동아시아에서는 불성을 완전한 붓다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사유에서 성불하라는 말은 '이미 넌 붓다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불교에 있어서의 믿음.

불교에서의 믿음이란 내 자신이 끊임없이 그 믿음에 대해 회의하라고 한 것이다. 그 후에 확신이 들면 그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에 대한 부정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중요하다.
불교에서의 conviction과 기독교에서의 faith는 다르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내가 부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법dharma

인도의 전통에서 dharma는 도덕적 의무, 규범을 뜻한다. 법률, 윤리 등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1. 삼보: 법(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이므로 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2. 존재(실재)의 요소

-법의 변화

→법이 공하다.
공(公)의 개념은 그 어원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 원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수냐타sunyata이다. 그리고 수냐sunya는 '부풀리다'라는 뜻의 스비svi에 기원한 것이다. 알 수 있듯이 어원은 그 단어와는 정반대의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법이 공하다'라고 할 때 법을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 지와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다. '법이 공(公)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내재한 양극단의 초월-중도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 즉 계속해서 변화하는 자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붓다는 카티야야나Katyayayana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사람들의 견해는 언제나 <있다有>와 <없다無>의 두 갈래 위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이 있다.>가 이 쪽 끝이고, <그것이 없다>는 저쪽 끝이다. 세상은 이 양 극단 사이에 갇혀있다. 성자는 그 한계(극단)를 초월한다. 양극단을 피하면서 여래는 그 한가운데[中道]에서 법을 설하신다. 거기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옛지혜학파와는 달리] 이 법을 이제는 <비어있음>이라고 부른다. 절대적인 것은 비어있고, 모든 [상대적]존재들 또한 비어있다. 그런 <비어있음> 속에서는 니르바나와 세간(世間)이 만난다. 둘은 더 이상 다르기를 멈추고 같은 것이 된다.』

○질문
사실 지난 시간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수업에 불참하게 되어 수업시간에 언급되었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양철학 및 종교와 불교에서의 개념규정이 달라서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이 그 차이를 밝히는 데서 그쳤던 것 같습니다. 법이 비어있다란 말은 계속해서 양극단의 중도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독일 관념철학에서의 변증법에 관련한 논의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불교에서 비구니가 해탈하기 위해서는 성이 바뀌어야 한다.'와 기독교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거나 '동성애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대 사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웃음이 나올만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교리는 당시 사회관계들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업(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부패한 정치인들은 어차피 다음 생에서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 복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계급사회의 계급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계급사회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베풀고 인덕이 좋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좋은 인식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한 결과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연장되면서 계급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업의 개념 또한 당시 사회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